

일본 지진사태가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

(2011.03.31)

[요 약]

I. 주요국 정부의 반응	1
II. 주요국 산업에 미친 영향	4
III. 주요국의 원전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	11

작성 : 통상조사팀 강신학 차장(ks@kotra.or.kr)

감수 : 통상조사처 한선희 처장(shan@kotra.or.kr)

요 약

□ 주요국 정부, 對日 지원후 방사능 피해 방지에 주력

- 미국, 중국, 러시아, 프랑스 등 세계 주요국은 일본 지진 발생직후 구조인력, 구호품 등을 일본에 지원
- 미국과 러시아는 일본 원전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핵 전문가 파견
- 미국 등 주요국은 원전사고 인근 지역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, 일본 식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
 - 브라질은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미 실시 결정

□ 자동차 등 제조업체, 부품공급 부족으로 조업 차질 우려

- (미국) GM, 루이지애나주 픽업트럭 생산공장 3.21일(월) 가동 중단
- (미국) 애플, 보잉, 인텔도 핵심부품 공급 부족으로 생산차질 우려
- (중국)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전자, 화학, 자동차 산업의 피해 우려
- (프랑스) 르노는 닛산, PSA 푸조시트로앵은 미쓰비시의 플랫폼과 주요부품을 사용함에 따라 부품공급 부족으로 생산차질 우려
- (싱가포르) 반도체 기업 부품공급 부족으로 대체공급선 모색
- (인도, 필리핀, 태국, 멕시코) 일본 자동차기업의 생산 중단 우려

□ 주요국의 대일 수출 급증 예상 업종 등

- (중국) 식품, 철강 : 일본의 공급부족 및 재건 수요
- (러시아) LNG, 전력 : 일본의 전력사정 악화, 유럽의 원전 우려
- (말레이시아) 목재 : 일본의 재건사업에 따른 주택 건설 수요
- (독일, 스페인) 태양광, 풍력 :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

□ 주요국의 원전 프로젝트는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

- 미국, 프랑스, 러시아, 인도, UAE는 계획대로 원전건설 추진
- 독일은 7개 원전 가동 중단, 중국은 신규 원전 허가 잠정 중단

I | 주요국 정부의 반응

가. 미 국

□ 對日 지원

- 미 정부는 일본의 지진피해 지원에 총 4300만 달러의 예산 책정
 - 구조 전문인력 144명과 수색견 12마리를 일본에 파견
 - 제 7함대 소속 군함 20척, 군용기 140대, 군인 1만 2750명을 피해지원 활동에 투입
 -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응 지원을 위해 39명의 전문가 파견
 - 등유, 식품, 식수 등 약 110톤의 구호품을 일본측에 전달

□ 방사능에 대한 과도한 반응 자제 촉구

- 일본지진 발생 1주일후인 3.18일(토) 캘리포니아 주도인 새크라멘토 감시소(monitoring station)에서 일본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 극소량 검출
- 미 식약청(FDA)과 LA시 비상관리부는 최근 요오드제 사재기에 대한 자제 촉구, 처방없이 복용시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
 - 최근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형 약국체인 CVS 등에서는 요오드제 재고가 바닥나고, 손전등, 생수 배터리, 방독면 등 판매가 크게 증가

□ 방사능 검사 강화

- 미 식약청(FDA)은 일본 원전피해지역에서 생산된 유제품, 농산품 수입을 금지, 기타 일본지역에서 수입한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강화
- 3.17일(금)부터는 미 공항은 일본발 승객을 대상으로 방사능검사 실시

나. 중 국

□ 對日 지원

- 인명 구조팀 파견 및 3천만 위안 (457만 달러) 상당의 구호품 전달
- 일본 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전개
 - 중국 적십자회는 일본에 600만 위안 (91만 달러) 제공
 - 3.17일(목) 중국 적십자회, 중화자선총회는 일본 지원 성금 모금 시작

□ 방사능 검사 강화

- 지린, 타이저우, 난퉁 등지의 중국 검역당국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승객과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 실시

다. 러시아

□ 對日 지원

- 180명의 인명구조팀, 체르노빌 원전 수습에 참여한 핵 전문가 2명 파견
- 일본의 요청으로 4월과 5월에 LNG 10톤씩 추가 공급 예정, 장기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통한 전력 6000MW를 송전 검토

□ 애도와 성금 모금 운동

- 정부인사와 다수 시민들이 주러 일본대사관 앞에 헌화하고 애도
- 모금 활동 전개
 - 러시아 국영은행 스베르방크, 러시아 적십자사는 기부금 모금을 위한 개좌를 개설하고 모금운동 실시
 - 러시아 록그룹 'Mashima Vremeni'는 3.18일(토) 모스크바 클럽에서 자선 콘서트 개최

□ 방사능에 대한 과도한 반응 자제 촉구

- 체내 방사능 물질 축적을 막아주는 요오드제, 요오드가 함유된 미역과 적포도주, 대당 5천 300루블(약 21만원)인 방사능 측정 기구 품귀
- 이에 러시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바람 방향까지 러시아로 향해도 극동 지역에 위협은 없다고 강조.

라. 기타 국가

□ 프랑스

- 인명구조대원 396명 파견
- 프랑스 국민의 일본여행 자제 권고, 일본 체류 교민들은 일본 남부로 이동 또는 프랑스로 귀국을 권고

□ 독일

- 도쿄인근 지역 거주 독일인들에게 해외로 대피토록 권고
- 도쿄주재 대사관 임시로 오사카로 이전

□ 브라질

-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승객과 식료품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언급

□ 멕시코

- 인명구조대원 8명, 구조견 2마리, 건물 구조 전문가 2명 파견
- 아에로멕시코 및 대한항공 특별기를 통해 일본체류 교민 귀국 지원
- 아시아발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실시

II 주요국의 산업에 미친 영향

가. 미 국

□ 일본산 부품소재 공급부족으로 생산차질 발생

- GM,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조달 차질로 루이지애나주에 위치한 픽업트럭 생산공장이 3.21일(월)부터 가동 중단
- 일본 동북부 이바라키현 소재 텍사스 인스트루먼트(Texas Instrument)사의 반도체 생산설비 피해 발생으로 미 전자업계 부품 조달 애로
 - 동 공장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 전체 반도체 생산량의 10%를 차지, 7월경에야 정상가동 가능
- 애플, 보잉 (787의 부품 1/3을 일본에서 조달), 인텔도 일본 핵심부품 공급 부족으로 생산 차질 우려
- 미 물류기업의 일본 동북부 지역의 물류센터 피해 발생
 - 프로로지스(ProLogis)는 4개, AMB Property는 2개 물류센터에 피해 발생
 - 페덱스(FedEx)는 일본 동북부 운송 서비스를 전면 중단

□ 아시아지역 진출 미 기업 투자철회 검토 부채질

- 액센추어(Accenture)는 최근 미국 제조업체 287개사를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, 아시아 지역 투자진출 기업 대부분이 미국이나 남미로 투자이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, 이 번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투자 이전 검토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전망
- 투자이전 검토의 주요 사유는 아시아 지역의 임금 상승, 기대에 못 미치는 생산성, 미국시장까지의 운송임 증가 추세, 납기 단축에 대한 시장의 요구, 공급체인 단순화 추구 등

□ 美 진출 일본자동차 업체, 생산 차질 미미

- 토요타 : 일본에서 공급되는 부품의 공급 차질로 미국 내 생산공장의 초과근무는 중단했지만 여전히 2교대 생산 중
- 닛산 :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분간 가동중단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
- 혼다 : 주요 부품 대부분을 미국 내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일본 지진피해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발표

나. 중 국

□ 대일 수출, 장기적으로는 증가 기대

- 현지 전문가들은 이 번 대지진이 단기적으로는 대일본 수출에 악재임이 분명하나 향후 재건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도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

□ 전자산업, 일본기업은 피해우려 중국기업은 영향 미미

- 소니, 도시바, 파나소닉, 산요, 샤프, 마쓰시다 등 중국 진출 일본기업은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조업 중단 우려
- 스카이워스, 하이신 등 중국 기업은 액정패널 등 주요부품을 한국과 대만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단기적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

□ 일본 소비제품 수입 애로

- 중국 최대 온라인쇼핑몰 타오바오(淘寶)의 일본제품 구매 대행점 (2천개)에서 주문접수 중단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상당한 타격 예상

□ 철강산업은 수출 증가 기대

- 중국 철강업계는 당분간 지진 피해지역에 소재한 일본 주요 철강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데다, 향후 재건사업에 따른 철강재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대 대일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
- 징공철강구조(Jinggong Steel Building Group)는 중국기업 중 유일하게 일본 강구조 성능인정을 획득, 대표적인 대일 수출 수혜기업으로 부각

□ 일본으로의 농산품 수출 증가 기대

- 일본의 '어미지향(魚米之郷)'으로 불리는 동북부지역이 이번 지진으로 농어업기반이 붕괴한데다 방사능 물질 오염 우려로 상당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수년간 중국의 대일 농산품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

□ 중국, 日 하이테크 기업 투자유치 기대

- 중국 메이 연구원은 일본기업들이 이번 대지진으로 생산시설, 고객, 시장점유율 등 여러 측면에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종래 해외이전을 기피했던 하이테크 및 자본집약 업종도 해외투자를 고려할 것이므로 이들을 중국으로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문

다. 러시아

□ 對日 에너지 수출 증가 예상

- 러시아 정부의 지시로 가스프롬은 올해 4월, 5월에 LNG 10만 톤씩을 할인된 가격에 일본에 추가 공급 예정
-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일본으로 6천MW 상당의 전력공급을 위한 해저 케이블 부설 계획을 검토

라. 프랑스

□ 자동차산업 피해 우려

- 르노와 PSA 푸조시트로앵은 각각 닛산, 미쓰비시와 플랫폼 및 주요 부품 공동사용 등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어 부품 공급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 중단이 불가피

□ 명품 수출 급감 예상

- 향후 일본의 명품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유명 럭셔리 기업의 대일 수출이 급감될 것으로 전망
 -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명품소비시장으로 세계 명품시장의 11% (2010년 기준)를 차지
- 특히, 일본 시장 매출비중이 높은 Hermes (19%), 루이뷔통과 디오르 브랜드 등을 보유한 LVMH (16%), 구찌 브랜드 등을 보유한 PPR (14%)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

마. 영국

□ 전자부품 가격 급등 우려

- 영국 전자부품공급자협회는 이 번 지진사태로 반도체 등 전자부품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우려

□ 임시 전력설비 수출 증가 기대

- 일본 54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 11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로 향후 일본 지역내 전력부족으로 전력설비 (디젤 발전기) 및 이동식 냉난방 설비의 대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바. 독일

□ 일본 진출 독일기업 일부 도쿄서 철수

- BMW, 폴크스바겐(VW) 및 콘티넨탈(Continental)은 식수와 식료품 부족, 교통 마미 등의 문제로 현지 독일 근로자 모두 독일로 철수

□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 전망

- 일본의 원전 사고 여파로 독일내 7기 원전을 가동중단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태양광, 풍력기업의 주가도 상승
- 태양광,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산업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어 독일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반사이익을 기대
 - 그루베(Ruediger Grube) 독일철도(Deutsche Bahn) 사장은 일본의 원전 사고는 재생에너지 가속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독일철도는 조만간 철도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임을 언급

□ 하이테크 분야 생산 차질 예상

- 일본으로부터 핵심부품을 수입하는 자동차, 전자, 기계, 광학 등 분야는 이르면 4월초부터 생산차질 예상
 - 폴크스바겐(VW)은 핵심 엔진부품 제고가 4월초 고갈 예상
 - 오펔도 일부부품 공급 부족으로 조만간 생산 차질 발생 우려

□ 일본 상공회의소, 일본제품 보이콧 우려

- 독일 소재 일본상공회의소는 방사능 노출로 인한 일본 제품의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며, 현재 일본 상품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

사. 스페인

□ LNG, 재생에너지 분야 수혜 기대

- 스페인 정부는 일본의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에너지 부족으로 LNG 수출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
 - 스페인은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해저 가스관 2개를 운영하고 있어 수출을 위한 여유량이 풍부
- 이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어 독일, 덴마크, 스페인 등과 같은 유럽의 재생에너지 강호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

아. 인도

□ 델리-뭄바이산업회랑 프로젝트의 차질 우려

- 인도정부는 대 인도 주요 투자국인 일본의 투자 진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인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1천억 달러 규모의 델리-뭄바이산업 회랑 프로젝트(DMIC, Delhi-Mumbai Industrial Corridor)가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

□ 현지 진출 일본 자동차기업 피해 확산

- 혼다, 닛산, 토요타 등 자동차 메이커들은 상당수 핵심부품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어 부품 공급중단이 계속된다면 4월초부터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
 - 인도 자동차업계 1위 기업인 마루티 스즈끼는 일본 모기업이 이번 지진 피해를 직접 입지 않았고 현지 생산모델의 현지 부품조달률 85% - 95%로 높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

자. 싱가포르

□ 반도체 기업, 대체공급선 모색

- 싱가포르내 70개사에 달하는 반도체 제조업체 대부분은 일본으로부터의 핵심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자 대체 공급선을 모색 중
 - 싱가포르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글로벌파운더리(GlobalFoundries), 인피니언(Infineon)의 자회사인 란틱(Lantiq)사는 공급 대체선 발굴을 위한 프로젝트 팀을 발족

차. 말레이시아

□ 주요 산업별 영향

- (자동차) 말레이시아 현지 자동차 회사 프로톤(Proton)과 페로두아(Perodua)는 주요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부품 공급중단이 장기화 할 경우 조업중단 불가피
- (철강) 일본 철강기업의 피해로 철강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일부 바이어는 포스코와 China Steel Corp. 등 일본산과 유사한 품질 수준을 생산하는 철강기업에 수입 타진
- (목재) 말레이시아는 대일본 목재 최대 수출국이며 일본에 재건 사업이 진행되면 일본 수요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
 - 특히, 일본 가옥 대부분이 견목으로 지어지며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인 견목 수출국

□ 일본 식품 수입 제한

- 4월 15일부터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 증명서가 부착된 식품만 수입할 예정이라고 발표

III | 주요국 원전 프로젝트에 미친 영향

가. 미 국

□ 신규원전 프로젝트에 추가 대출 보증 검토

- 미 정부는 미 의회, 미 환경 및 핵감시 과학자 협회 등 민간단체가 핵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3. 16일(수)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36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출보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
- 다만, 향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악화되어 미국 내에서 원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신규 원전건설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

나. 중 국

□ 신규프로젝트 허가 잠정중단

- 중국정부는 원전의 안전관리규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, 규정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프로젝트 허가를 잠정 중단기로 결정

< 중국 원전 프로젝트 추진현황 >

현재 운영중인 원자로	13기
현재 건설중인 원자로	28기
건설 검토중인 원자로	34기

-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원전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

다. 러시아

□ 원전건설 계획대로 추진

- 러시아는 원자력 발전 계획의 수정가능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핵에너지에 대해 여전히 애정을 보이고 있음.
-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, 유럽이 원전 사용을 줄이거나 신규 건설을 축소 한다면 러시아는 자국내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유럽으로 수출할 수도 있어 원전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
- 3.15일(화)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벨로루시에 총 발전용량 2.4GW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
 - 총 94억 달러 규모의 이번 원전 프로젝트는 2018년 완공 예정
- 3.16일(수) 모스크바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터키 총리인 에르도간의 회담에서도 일본에서의 방사능 위험에도 불구하고 터키에서 러시아 원전 건설계획이 변함없이 추진될 것임을 확인

라. 프랑스

□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려 확산

- 사회당과 녹색당 등 야권은 프랑스 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를 촉구
- 녹색당은 2012년 대선 전에 원자력 사용에 대한 국민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을 주장
- 사회당은 국민투표는 배제하면서도 향후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낮추는 등, 현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역설
 - 프랑스는 전체 에너지 중 78%를 원자력에 의존 (세계 평균은 16%)

□ 佛 정부, 원자력 포기는 불가

- 佛 정부는 프랑스 내 원전 58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 실시할 것을 약속하면서도 원자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발표
- 특히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최근 각료회의 등, 공식 석상에서 프랑스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안전성은 세계적 수준임을 강조

마. 독일 : 7개 원전 3개월간 중단

- 독일 정부는 3.14일(월)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 여파로 17개의 원전 중 노후한 7개의 원전 가동을 3개월간 중지하고 부족 전력은 체코로부터 구입

바. 인도 : 원전 증설 계획대로 추진

- 인도 정부는 필요시 안정성 강화 조치를 취할 것이나, 계획대로 2020년까지 원전생산전력을 2만 MW까지 끌어올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발표
- 그러나 인도 서부에서 프랑스 아레바사 주도로 건설중인 원전 6기 공사가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핵폐기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 반대로 난항 중

사. UAE : 원전 건설 기공식 개최

- 일본 대지진이 발생에도 불구하고 3.14일(월) 아부다비 서쪽에 위치한 브라카 지역에서 원전건설 기공식에 우리 대통령과 UAE 등 많은 관계자 참석하에 예정대로 거행
- 우리기업이 아부다비에 건설하는 원전은 APR1400형 4기이며,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기씩 완공 예정

Kotra Executive Brief 11-000

일본 지진사태가
주요국의 산업에 끼친 영향

발행인 | 조환익
편집인 | 곽동운
발행처 | KOTRA
발행일 | 2011년 3월
주소 |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
(우 137-749)
전화 | 02) 3460-7114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